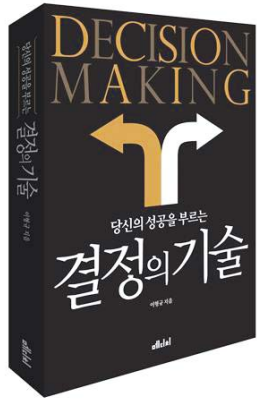


선택의 갈림길에서 내리는 결정적 순간

▶ 신간도서 - 이형규 '당신의 성공을 부르는 결정의 기술'

"인생이란 스스로의 판단이 만든 결정체다. 우리 삶의 오늘은 어제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고 우리의 내일은 오늘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하루 하루의 삶이 모여 한 달이 되고 일 년이 되고 인생이 되듯, 하루하루의 결정이 모여 내가 되고 사회가 되고 우주가 된다. 우리는 성공을 위해 달리고 행복을 향해 나아가지만 이 역시 모두 스스로 가 내린 판단의 결과물이다"



"좋은 생각이 있다 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 없어"

입체적인 의사결정 전략을 담은 '디지탈 메이킹 Decision making' (2011년)의 저자 이형규 전주대 창업지원단장이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이들의 결정적 순간을 돕기 위해 개정증보판 <당신의 성공을 부르는 결정의 기술>을 펴냈다. 최선의 판단과 후회 없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 저자는 몰입·소통·통찰·결단 4단계 과정을 제안한다. 그는 특히 급변하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변화의 흐름과 결단의 타이밍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모토로라·노키아 VS 빌 게이

츠·잡스·저커버그 등 정보통신기술 관련 기업과 CEO들의 흥망성쇠를 예로 들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변화의 흐름에 발을 맞춰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개인이든 회사든 국가든, 변화의 흐름에 뒤처지면 나오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좋은 생각이거나 미래에 대한 통찰력

이 있다 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말한다. 통찰은 몰입과 소통을 통해 개발한 대안을 평가하고, 시야를 넓게 멀리 둘러보는 단계다. 이는 고정관념, 선부른 예측, 타이밍을 놓치는 실수, 변화의 흐름에 뒤처지는 상황 등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다. 결단은 판단의 과정을 통해 마련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단계로 기회와 타이밍을 고려해서 액션플랜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는 자신에 대한 믿음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떨칠 용기가 전제되어야 한다. 작가는 '꿈, 바로 여기서 도전한다' 장에서 "망설임은 피리가 길다. 어느 판단에도 따라다닌다. 항상 100퍼센트 확신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 판단을 내려야만 한다"면서 "판단에 필요한 충분한 지식, 충분한 경험, 정확한 미래 예측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어진다고 생각하며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라"고 조언한다. 그러면서 "타인의 의견이나 주변어른보다는 자신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설교한다. 저자는 성균관대학교에서 정책형성에 관한 연구로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북도 정무부지사를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는 전주대학교에서 창업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창업성공전략을 전수하고 있다. /정해은 기자

무주문화원 문화학교 · 평생교육과정 개강

2017년 무주문화원 문화학교·평생교육 과정이 지난 9일 개강했다. 무주문화원 문화학교·평생교육 과정은 해마다 생활 속에서 활용이 가능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강의를 마련해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250여 명이 등록을 한 올해는 가락장구와 누름꽃 & 프리저브드, 수묵화, 색소폰, 수채화, 양말인형 & 퀼트, 우크렐레, 통기타, 가족공예 등 9개 강좌와 평생교육 과정의 흥패션, 캘리그래피, 바리스타, 사진, 밸리댄스, 아크릴 페인팅 등 6개 강좌를 개설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문화원에 따르면 2017년도 과정에서는 지난 해 보다 1개 강좌가 늘었으며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 강좌도 2개나 개설됐다. 한편, 이날 최북미술관 2층 다목적 영상관에서 열린 개강식에는 무주군 이태현 부군수와 무주군의회 유송열 의장, 무주문화원 김내생 원장을 비롯한 수강생 등 1백 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기념식과 감사 및 강의 일정 소개, 감사 임명장 수여, 기념사진촬영 등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공연 & 전시

한눈에 보는 젊은작가 10인의 열정

우진문화재단 신예작가 초대전

강유진(전북대·서양화) 고건영(군산대·서양화) 고은솔(원광대·한국화) 김관희(원광대·조소) 김단비(군산대·한국화) 박지수(전북대·한국화) 안제하(예원대·한지조형디자인) 이투리(전북대·조소) 이수정(원광대·서양화) 조혜미(예원대·한지조형디자인) 10명이 작가출발선상에 섰다. 우진문화재단의 '제2회 신예작가 초대전'에서는 이들의 열정의 질주를 엿볼 수 있다.



이수정작 '혼돈'

이들 작가 중 이수정은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이 집착하는 외적인 아름다움, 물질만능주의, 권력지상주의, 허세적 외양과 화려한 삶의 인대를 고찰한다. 이 작가는 이러한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에 대해 "아름다움은 화려함에서 나온다고 믿으면서 처음 물질적이 되어가고 있는 자신에 대해 자각하게 되었고, 미의 내면적 본질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싶었다"고 한다. 작가는 인간을 장식해주는 옷가지, 지구상의 오래된 생명체들인 꽃·식물·물고기 등을 캔버스에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여기에 투명하고 반짝이는 다량의 오브제들을 첨가함으로써 화려하게 보여지는 외양과 그 뒤에 가려워진 본질적인 실재의 공존과 간극을 표현한다. 박지수는 대상표현에 있어서 매우 독창적 기법을 착안하여 활용하고 있다. 작품은 현상사진을 보고 있는 그대로를 묘사하다보니 서양의 명암법이 차용됐다. 언뜻 보면 오일페인팅을 가한 서양의 인물화처럼 보여지지만, 작가는 전통재료인 장지에 채색 안료를 사용한 전통채색 기법을 따랐다. 신예작가 초대전의 작가선정은 각 대학의 전공별 추천에 이뤄진 기획적으로 오는 22일까지 우진문화공간 갤러리에서 열린다. /정해은 기자

군산예술의전당 올해도 문예교육프로그램 선정

1인 1악기 프로젝트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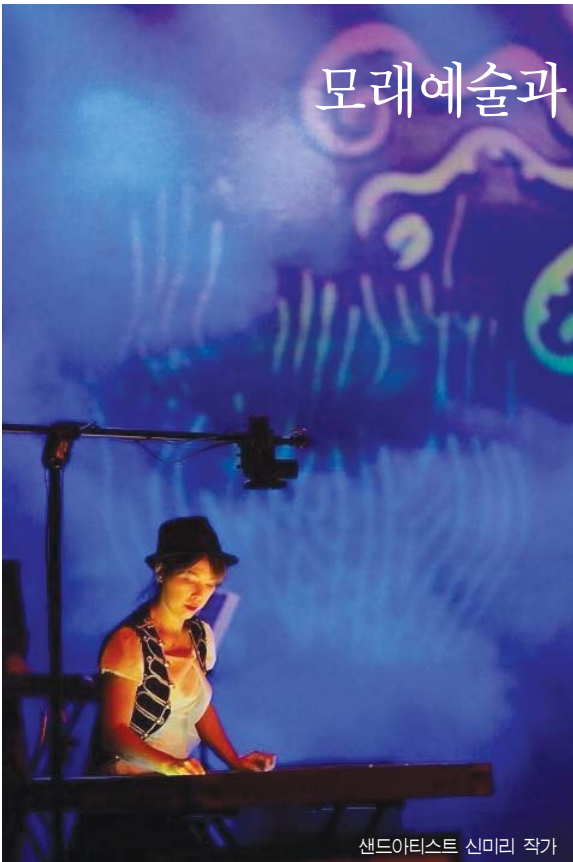
군산예술의전당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국립공모사업으로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행복한 우리동네 문예인 프로젝트)에 선정됐다.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교육 사업으로, 지역민의 문화예술 활동의 참여 유도를 통해 문화예술 애호가의 저변 확대와 지역 예술 강사들의 활동 범위를 넓혀 줄 수 있는 통합적 교육프로그램이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진행되는 1인 1악기 프로젝트는 4월부터 11월까지 30주 동안 실생활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악기인 오카리나, 우크렐레를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예술의전당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예술교육기관으로서 군산예술의전당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문정곤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모래예술과 팝페라의 콜라보

국립전주박물관 '새봄을 연다' 18일 오후 공연

국립전주박물관(관장 김승희)은 샌드아트(모래예술)와 팝페라의 콜라보레이션을 마련한다. 한 줌의 모래 아트와 음악이 어우러진 따뜻한 이야기, '새봄을 연다' 공연은 오는 18일 오후 3시·6시 박물관 강당에서 두 차례 열린다. 공연무대에는 수채화 작가 출신인 샌드아티스트 신미리와 팝페라의 여제 소피아 킴이 함께 오른다. 샌드아트는 빛과 모래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예술로써, 음악에 맞춰 다양한 이야기를 구사한다. 봄의 사랑이야기·동화 속 이야기·바닷 속 이야기로 구성된 공연은 색다른 칼라의 표현과 문구·그림을 공연 중에 실사로 띄우는 등 차별화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어 팝페라는 보다 편안한 무대를 연출하고자 겨울왕국 OST·오페라 카르멘 中 Habanera·Can't help falling in love 등 친근한 음악을 편성, 문화의 향기를 전한다. 또한 손끝에서 탄생되는 마법 같은 샌드아트의 멋과 아름다운 팝페라의 운율이 조화를 이루는 영상은 영화 레미제라블 OST·아리랑을 한 편의 동화처럼 펼쳐낼 예정이다. 공연은 무료이며, 전주박물관 누리집(jonju.museum.go.kr)에서 17일 오후 6시까지 선착순으로 예약을 받는다. 이와 함께 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리고 있는 '조선왕릉' 특별전도 만날 수 있다. 25일 오후 6시에는 영화 '스파이더워크'의 비밀이 문화사랑방에서 상영된다. /정해은 기자



샌드아티스트 신미리 작가

여기행이나 가볼까?



임실군

관촌 사선대

2천년전 네 신선과 네 선녀의 전설을 간직한 사선대는 조각공원 및 체육시설과, 청소년수련원, 인조잔디구장을 갖추고 있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천담 구담마을

섬진강 강변과 산이 어우러져 한쪽의 수채화를 담아 낸 듯한 마을로 포장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옥정호 순환도로 드라이브길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한 전국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된 이 길은 수목산수화에서나 볼 수 있는 아름다움을 자아냅니다.

옥정호 붕어섬(외얏날)

호수 속에 있는 신비로운 섬! 세계절마다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는데, 특히 봄과 가을에는 물안개로 풍경이 절정에 이릅니다.

